

# West Saxon 방언의 'ie' 음가에 관하여

박 영 배

## I

고대 영어 문헌에는 ē(=æa), ēo, io 및 ie와 같은 이중모음이 쓰였는데 이들은 중세영어에 이르러서 모두 단모음화하였다. 서색슨 방언에만 나타나는 ie는 *i-umlaut*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이것도 고대영어의 후기로 오면 *i*로 단모음화된다. 본 논문에서는 서색슨 방언에만 나타나는 이중모음 ie의 음가에 관한 종래의 연구를 소개하고 음가설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.

## II

고대영어의 이중모음이 현대언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도 Robert P. Stockwell & C. Barritt(1951)의 연구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. 이들은 이 연구에서 長二重文字(long digraphs)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음소적인 이중모음(phonemic diphthongs)으로 간주하고 「단모음+이동음(w)」으로 분석하였다. 한편 短二重文字(short digraphs)는 æ~ea, e~eo와 같은 쌍을 이루는 단모음의 短二重母音적인 성격을 띤 변이음(allophones)으로 다루어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이중문자는 다음에 오는 後舌母音과의 metaphony 또는 뒤에 오는 자음의 동화현상으로 인하여 전설모음이 後舌化되거나 연구개화된 변이음을 나타낸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. 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
- (1) a. /æw/ → [æu] (ēa. æa)  
      /ew/ → [eu] (ēo)  
      /iw/ → [iu] (ie, io)  
      b. ea(=æa)→ [a]  
          eo → [ø]  
          ie, ie → [i]

그 후에도 고대영어의 이중모음의 음운론적인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은 있어 왔으나 이들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. 서색슨 방언에만 나타나는 ie의 음가에 관한 팔목할 만

한 분석은 R. Lass & John M. Anderson (1975)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. 이들이 주장하는 ie의 음가분석에 대한 비판에 앞서 철자 ie가 고대영어에 나타나는 4개의 방언(Northumbrian, Mercian, West Saxon, Kentish) 중에서 서색슨 방언에만 흔하게 쓰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겠다. Campbell(1959)은 그 이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. 우선, 서색슨 방언에는  $i+e > ie$ 로 자연스러운 축약(contraction)현상이 일어나서 쓰였으나 다른 방언에는 그러한 이중모음을 갖지 못하였다. 따라서 WS에서는 ie는 二音節을 이루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. (예 : sie 'be, pres, subj.'). 그 다음으로는 전설모음이 구개음 뒤에서 이중모음화(diphthongization)하는 현상이 서색슨 방언에서는 규칙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본래 구개음인 i에 의해서 뿐 아니라 원시게르만어인 k 및 g에서 온 새로운 구개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된다. (예 : e > ie : scieran 'cut', giefan 'give' ē > ie : gīet 'yet', gīe 'ye'). 셋째로는 i의 back umlaut 현상으로 서색슨방언의 초기문헌에서 ie가 io 대신 쓰이게 된 것으로 본다. 넷째로는 i 다음에 「r+자음」이 오면  $i \rightarrow ie$ (초기 서색슨 방언)로 쓰였다. (예 : bier ð 'he bears')

Campbell의 상기한 진술은 불명확한 점이 많다. i-umlaut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ie가 나타나는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gie-, scie-와 같은 예에 쓰이는 것들은 단순한 이중모음이라기보다는 「자음+palatalization diacritic+e」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「r+자음」앞에서  $i \rightarrow ie$ 로 되는 것은 단순히 breaking rule 때문이거나 규칙단순화(rule simplification) 과정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.

### III

Lass & Anderson(1975)에 의하면 서색슨 방언에 나타나는 ie가 후기에 와서는 i-umlaut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.

- (2) a. 구개음 앞에서 :  $ie > ī$  : mieht > miht 'might', hīeg > hīg 'hay'  
 b. 그 밖의 경우 :  $ie > ȳ$  : ieldra > yltra 'older', hīeran > hyran 'hear'

Lass & Anderson(1975)은 서색슨 방언의 ie가 후기로 와서 상기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변화한 점을 근거로 ie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중의 한 요소는 [+high], [+round], [-back]의 자질을 가진 음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주장하고 그 음가로 [iu] 및 [iy]의 두 가지를 설정한 다음 음가 선택에 필요한 조건으로 (a) umlaut규칙과 diphthong height harmonization (DHH)의 적용순위문제 (b) umlaut규칙을 diphthong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만 적용해야 하는지를 (3)에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.

- (3) a. umlaut를 먼저 적용할 경우

	(a)	(b)
	Both vowels	Left vowel only
underlying form	æ u      eu	æ u      eu
(Input)		

Umlaut I	ey	ey	eu	-
Umlaut II	iy	iy	iu	iu
DHH	-	-	-	-
Output	iy	iy	iu	iu

b. DHH를 먼저 적용할 경우

Underlying form (Input)	(a) Both vowels		(b) Left vowel only	
	æ u	eu	æ u	eu
DHH	æ a	eo	æ a	o
Umlaut I	e æ	e ∅	ea	-
Umlaut II	i æ	i ∅	ia	io

이들은 DHH가 'everywhere rule'인 경우 [iæ] 및 [i∅]에 적용되어 [iy]를, 그리고 [ia] 및 [io]에 적용되어 [iu]를 output value로 생성해 낼 수 있다고 보고 umlaut가 DHH보다 선행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한편, umlaut가 이중모음의 어느 요소에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고대영어의 모음체계상 이중모음과 장모음의 경우 장모음의 두 요소는 동일한 음인 반면 이중모음의 그것은 같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umlaut는 이중모음의 첫 번째 요소에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height value에 관계없이 output은 [+high]라고 결론짓고 나머지 이중모음과의 congruity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서색슨 방언 ie의 음가는 [iu]로 택할 것을 제외하고 있다. [iu]가 ie의 output value인 경우 첫 번째 요소에 대한 umlaut규칙의 하위규칙 즉, [eu]/[æu]가 [+high]로 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지는 데 이것이 (4)와 같은 중화규칙(neutralization)이다.

$$(4) \begin{matrix} [eu] \\ [æu] \end{matrix} > [iu] / \_ C_0 [-back, +high]$$

이 하위 규칙은 이중모음문자가 똑같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우선 필요하다. umlaut규칙이 적용될 때 이중모음을 만족시켜 주는 유일한 형태는 두 번째 요소로 [+back]의 자질을 가지게 되며 中母音 [e]나 低母音 [æ]는 모두 전설모음들이므로 위의 조건하에서 [+high]의 자질을 가진 모음을 생성해 내는 규칙이 필요해 지며 이 음운 규칙은 (5)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.

$$(5) V_i \rightarrow [+high] / V_j C_0 [-back, +high] \\ \text{Cond: } V_i \neq V_j$$

그러면 서색슨 방언에서 [iu]의 음가를 지닌 철자를 왜 ie로 썼을까?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[æa]를 æa로 쓰지 않고 ea로 쓴 것과 같은 graphic convention의 문제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. 서색슨 방언의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철자는 삼중모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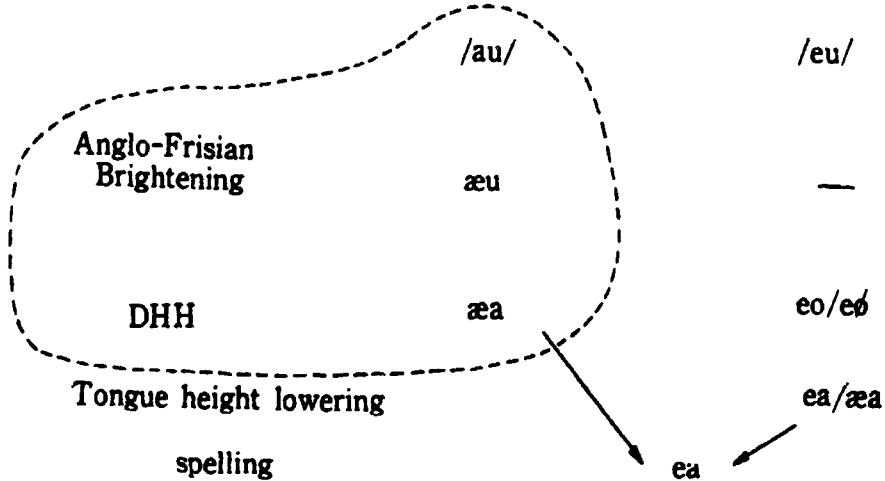
(triphthongs)을 쓰지 않은 철자법으로 인해 æa, aea와 같은 철자는 사용되지 않았다. 이와 같은 이유로 iu(대체로 io)는 쓰이지 않았다. 그런데 'e'라는 문자는 고대영어에서는 中立文字(neutral graph)로서 'e' 다음에 다른 모음이 올 때에는 æ 대신 구개음화를 나타내는 구별부호(diacritic)로 쓰이고 e앞에 i가 오면 u 대신 사용되었다. 그 이유는 만약 i가 成節音(syllabic)을 나타낼 경우 그 뒤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다른 非子音 요소는 DHH의 적용에 의해 그 음가는 [u]가 된다. 이와 비슷한 경우는 중세영어의 동앵글리아 방언(East Anglian)의 철자 중에서 조동사에 나타나는 [ʃ]음을 예로 들 수 있다. 중세 영어에는 [ks]음을 가진 철자가 어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xal과 같은 형태에서 x는 [vp[x]<sub>x</sub>[v]<sub>v</sub>]vp와 같은 syntactic context로 인해 [ʃ]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.

#### IV

서색슨 방언의 ie의 모든 發現形(reflexes)은 어떤 근원에서 나왔든 간에 중세영어에 와서는 똑같이 발달했다. 따라서 ie의 음성적인 특징은 모든 경우어나 똑같은 음을 알 수 있다. 그런데 ie의 음가 [iu]가 모든 경우에 똑같은 발달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i-umlaut에 의해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. 가령 /ii/의 경우 breaking에 의해 iia(non-West Saxon 방언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)로 되고 ia로 단순화된 다음, io>i로 되었다가 서색슨방언에서는 ie로, 다른 방언에서는 i로 철자화되어 쓰였다(예 : WS : liehtan, non-WS : lihtan). 즉, 서색슨방언 이외의 다른 방언에서는 breaking으로 나타난 이중모음이 매우 이른 시기에 단모음화되어 본래의 단모음과 똑같은 발달경로를 거쳐 변화했다는 점이다. 그 다음으로는 breaking과 umlaut의 적용순위이다. breaking이 umlaut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이 통례적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적용되면 Lass & Anderson이 제의한 대로 [æ]의 경우 [æ]→[io]/[iu]→[e]>[i]로 나타내게 된다. 그러나 앵글리아 방언과 켄트 방언의 [æ]에는 umlaut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[æ]→[i]로 나타나는 예가 다른 방언에는 없다.

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DHH가 'everywhere rule'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며 다른 방언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과 umlaut가 이중모음의 왼쪽 요소에만 적용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. DHH는 고대영어의 이중모음이 발달하는 데 있어 매우 초기에 나타난 규칙이며 umlaut보다 먼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. 고대영어의 후기로 오면 이 규칙이 relax 되어 이중모음의 양쪽 요소의 혀 높이(tongue heights)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, 특히 두 번째 요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.

(6)



(6)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부방언에서는 umlaut를 겪지 않은 [au] 및 [eu]에서 일어난 이중모음들이 뒤에 합쳐져서 ea란 철자로 쓰였다. DHH가 relax되면서 혀의 높이가 낮아져서 /eu/로부터는 eo>ea가 되어 [o]>[a]로 낮아지고 [e]>[æ]로 다시 낮아졌다. /au/로부터는 WS 'lēaf'와 함께 lēaf 'leaf'가 쓰인 반면, WS 'lēof', Kentish 'liof'와 함께 leaf 'dear'란 형태가 쓰인 점과 켈트 방언의 ia가 /au/ 및 /eu/의 발현형을 나타내 준다는 점으로 미루어 Lass & Anderson의 주장대로 DHH를 'everywhere rule'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의 의심스럽다. i-umlaut는 서색슨 방언에서는 일단 breaking이 이루어진 뒤에 적용되는데 기저형이 /a/ 및 /aa/인 경우 그 output은 각각 [æa] 및 [ææa]가 된다. umlaut에 의하여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로부터도 [iu]를 얻기는 어렵게 된다. 따라서 /au/에 i-umlaut를 적용해서 나타난 발현형은 위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(6)의 점선부분과 같은 중간형태인 [æa]를 얻어내고 양 요소에 umlaut가 적용되어 처음에는 [eø], 그 다음에는 [iy]를 얻게 되어 Lass & Anderson과는 달리 모든 서색슨 방언에 나타나는 ie의 음가를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된다.

서색슨 방언 이외의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들은 대부분 단모음화하여 전설모음이 되었다. (예 : [æa] < /a/ → [æ]/[e], [æa] < [ææ] → [ē], [iø] > /i/ & /ii/ → [i] & [i], [æa] < /au/ → [æ]/[ē], [iø] < /iu/ → [i] 등). 9세기경에 이르러 ie를 가진 서색슨방언의 철자는 지역에 따라 y 또는 i로 대체되어 쓰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켈트, 서색슨 및 동앵글리아 지역에서는 y→e로 대체되어 사용되었다. 이처럼 단모음화현상이 비교적 급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서색슨방언에서는 [iy] < [i]/[i]로 된 지역에서는 [+round] < [-round]로, [iy] < [y]/[y]로 된 지역에서는 [-round] < [+round]의 자질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추정할 수가 있다.

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서색슨 방언 'ie'의 음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른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DHH가 umlaut보다 선행해

서 적용되어야 하며 umlaut는 이중모음의 양쪽 요소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. 다른 방언에서와는 달리 서색슨 방언에서는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의 원순성(rounding)이 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된 점으로 보아 그 음가는 [iy]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할 것이다.

## References

- 朴榮培 譯(1981), 「영어사서설」, 서울 : 乙酉文化社.
- 朴榮培(1998), 「영어사」, 신영어학총서 5권, 서울, 한국문화사, [수정판, 2000]
- Campbell, Alistair (1959), *Old English Grammar*, London : Oxford University Press.
- Daunt, Marjorie (1939), "Old English sound changes reconsidered in relation to scribal tradition and practice", *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*.
- Hogg, Richard M. ed. (1992), *The Cambridg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*, Volume 1 : The Beginnings to 1066, Cambridge University Press.
- Hogg, Richard M. (1992), *A Grammar of Old English*, Volume 1 : Phonology, Blackwell.
- Kuhn, Sherman M. & Quirk, R. (1953), "Some recent interpretations of Old English digraph spellings", *Lg* 29, pp.372~389.
- Jones, Charles (1989), *A History of English Phonology*, London and New York, Longman.
- Lass, Roger, ed. (1969), *Approaches to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*, New York : Holt.
- Lass, R. & Anderson, J. M. (1975), *Old English Phonology*, Cambridge University Press.
- Lass, Roger (1994), *Old English : A historical linguistic companion*, Cambridge University Press.
- Stockwell, R. P. & Barritt, C. (1951), "Some Old English graphemic-phonemic correspondences : 'ae, ea, e'", *Studies in Linguistics*, Occasional Papers, 4.